

##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금이<sup>1\*</sup>, 박현숙<sup>2</sup>

<sup>1</sup>대구과학대학 간호과, <sup>2</sup>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 Geum Yi<sup>1\*</sup> and Park, Hyun Soo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sup>2</sup>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385명의 간호대학생이었고,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신체적 건강상태, 긍정적 정서 및 경제상태 순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주관적 행복감을 49.4%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의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385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positive emotion, gratitude disposition, flow,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PASW. 18.0 program.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were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physical health status, positive emotion, and economic status, explaining 49.4% of the variance in subjective happines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were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and flow.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proach to effective happiness promo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should consider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and flow.

**Key Words** : Happiness,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긍정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인간의 강점과 잠재능력에 대한 탐구와 인간의 안녕, 만족 및 풍성한 삶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7]. 이러한 관심은 인간의 긍정적인 인지,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경

험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37], 대표적인 연구 분야로 인간의 '행복'을 들 수 있다.

초기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요인을 갖춘 사람이 좀 더 행복한가에 관심을 가졌으나, 연령이나 결혼여부, 소득 등 인구학적인 요인이나 객관적인 지표들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4]. 따라서 인간의 객관적인 삶의 조

본 연구는 2010년도 대구과학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 조금이(ehdn82@hanmail.net)

접수일 10년 12월 23일

수정일 (1차 11년 01월 09일, 2차 11년 01월 12일)

게재확정일 11년 01월 13일

건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행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주관적 행복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개인의 지각된 행복감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이론에서는 행복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 보고 있으며[9], 행복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27].

행복은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면에서 더 강한 면역체계를 가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고[35], 사건과 주변 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고 반응하며[31], 우울, 자살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덜 보이고, 자기조절 능력과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29].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나, 최근 행복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으로 긍정적 정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간이 즐거운 정서를 경험하면 자신과 주변의 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상적 사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긍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4]. 감사 성향도 행복과 관련이 또 다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 성향이란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4]. 일반적으로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 불안, 고독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고, 삶에 대한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또 다른 행복과 관련된 변인으로 몰입을 들 수 있다. 몰입이란 행동 그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서 외부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행동, 즉 개인이 스스로 심취하여 행하는 내재적 행동을 통해 얻는 경험을 의미한다[28]. 몰입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개발과도 관련이 있다[20]. 자아존중감도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1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이며[5], 행복 경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문화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행복과 관련된 변수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1] 등에 관심이 있다. 발달 단계별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22],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5], 학생집단과 성인집단을 비교하는 연구[14] 등이 수행된 바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17], 긍정정서, 몰입 및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으며[9],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8]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9,20,19].

이에 반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이라는 친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의료인과 환자 및 보호자와 상호관계를 해야 함으로 일반대학생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12].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긴장,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가 나타나거나[26], 취업 후 자신의 직업에 몰입하지 못하고 간호직무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직에 이를 수 있다[7]. 실제 국내 35개 병원을 대상으로 국내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이직률은 1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취업 후 직업 적응에도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1.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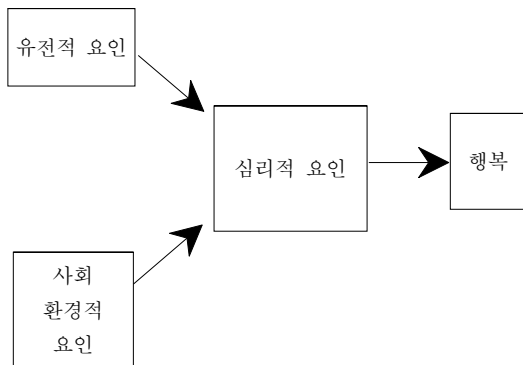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은 어느 정도인가?
- 3)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 이론적 기틀과 선행 연구 고찰

### 2.1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형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긍정심리학의 통합적 설명모형이다[30]. 통합적 설명모형에서는 인간의 행복에 유전적 요인이 50%, 삶을 영위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10%, 개인적 선택의 의도적 활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이 40%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생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크고 작은 생활 사건들은 심리적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하향·상향 이론과 더불어 심리적 매개모형을 포함한다[33]. 즉 행복은 심리적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그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생활사건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 통합적 설명모형

### 2.2 행복 관련 요인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형을 기반으로 할 때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은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3,27].

행복한 삶을 위해선 긍정적인 감정(positive emotion)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긍정적 정서는 즐거운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많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이러한 감정의 강도와 기간을 확장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3].

긍정심리학의 맥락에서 부정적인 인지,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 인지,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경험적인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7]. 수많은 연구들이 근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행복한 기분은 사람들을 보다 생산적이고, 더 호감이 가고, 건강하며 적극적이고, 친절하며, 도움을 주고, 회복력이 강하며, 창

의적이게 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33]. 이 말은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의미있는 삶이란 자신이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신념을 추구하거나, 그 신념을 위해 자신의 강점이나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7]. 이렇게 볼 때 행복한 기분이 들면 삶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정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관련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9].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행복 관련 심리적 요인과 행복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행복 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주요 변인은 감사 성향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감사는 기쁨, 행복,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분을 좋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및 지적 자원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33]. 평소에 감사를 많이 느끼는 대학생은 인지적, 정서적 안녕감이 높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풍부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덜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력이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또한 감사일지를 쓴 대학생은 부정적 정서가 감소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건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이 더 행복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대학생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있게 행동한다. 그 결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친취적이며 활력이 있는 삶을 산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나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게 된다[17].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은 몰입이다. 몰입경험은 주로 직업적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몰입상태를 경험하므로[28],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때 몰입을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요인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자아존중감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때 실습수행도와 실습만족도가 높고[24],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학업·취업 스트레스, 상태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으며[16],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의 과제 수행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13].

자아존중감 이외에 긍정적 정서, 감사성향, 몰입 등의 변인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간호사로서 취업 후 직업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실험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correlational research)이다.

####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위치한 3개의 3년제 간호대학에 다니는 1, 2, 3학년 간호대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 3.3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로서 대상자는 학년을 고려하여 편의 표집을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 수준 ( $\alpha$ )은 .05, effect size는 .30, 검정력( $1-\beta$ )은 .80으로 설정하였을 때 88명으로 계산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소 110명을 학년의 목표 인원으로 하였다. 총 응답자 391명 중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한 385명(98.5%)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 3.4 연구 도구

#### 3.4.1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과 Tellegen (1988)이 제작한 Positive Affectivity and Negative Affectivity Scale (PANAS)를 이유정(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시적인 감정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긍정적 감정상태(PA) 10문항과 부정적 감정상태(NA)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상태(PA) 10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점수 분포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28,15].

도구의 신뢰도는 이유정(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3.4.2 감사성향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2002)이 제작한 The Gratitude Questionnaire (GQ-6)을 권선중 등(2006)이 번안한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이며(최저 1점에서 최고 7점), 점수 분포는 7점에서 42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26,5].

도구의 신뢰도는 권선중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다.

#### 3.4.3 몰입

일상생활에서의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달(2004)이 제작한 특성/몰입감 척도(flow-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최저 1점에서 최고 5점), 점수 분포는 53점에서 26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6].

도구의 신뢰도는 유영달(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

#### 3.4.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제작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재(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며(최저 1점에서 최고 4점), 점수 분포는 4점에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29,16].

도구의 신뢰도는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8$ 이었다.

### 3.4.5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yubomirsky과 Lepper(1999)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임지숙(2004)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이며(최저 1점에서 최고 7점), 점수 분포는 7점에서 28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30,9).

도구의 신뢰도는 임지숙(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 3.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추후 검정으로 Turkey HSD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이 36.1%, 2학년이 30.9%, 3학년이 33.0%이었다.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68.3%, 전문대졸 전형이 14.8%, 특별전형이 16.9%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13.8%, 여학생이 86.2%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36.9%, 없는 학생이 63.1%이었다. 입학동기는 취업보장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적 특성이 28.8%,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가 23.6%, 봉사정신이 7.5%, 성적이 1.6%이었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반응한 학생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28.1%, 매우 건강하다가 22.1%, 건강하지 않다가 6.2%, 매우 건강하지 않다가 0.8%이었다. 동료관계가 좋다고 반응한 학생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25.5%, 매우 좋다가 13.8%, 나쁘다가 1.6%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고 반응한 학생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29.4%, 매우 만족한다가 16.4%, 불만족한다가 4.2%, 매우 불만족한다가 2.1%이었다. 성적은 지난 학기 성적이 3.5이상~4.0미만으로 반응한 학생이 40.3%로 가장 많았고, 3.0이상~3.5미만이 26.8%, 4.0이상 16.9%, 2.5이상~3.0미만이 13.0%, 2.5미만이 3.1%이었다. 가정의 경제 상태가 중간이라고 반응한 대상자가 53.2%로 가장 많았고, 하위로 반응한 학생이 22.1%, 중상위가 21.6%, 상위가 3.1% 순이었다[표 1].

### 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대학 입학 동기, 신체적 건강상태, 동료관계, 전공만족도, 성적 및 경제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입학 동기가 '전문성 특성'이라고 반응한 학생이 '취업보장'으로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고( $F=2.56, p=.038$ ), 신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반응한 학생이 건강하지 않다고 반응한 학생보다, 건강하다고 반응한 학생이 보통이라고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다( $F=36.19, p<.001$ ). 동료관계가 매우 좋다고 반응한 학생이 나쁘다 혹은 보통이라고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고( $F=10.79, p<.001$ ),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고 반응한 학생이 보통이다 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으며( $F=4.52, p=.001$ ), 지난학기 성적이 평점 4.0이상이라고 반응한 학생이 2.5미만 혹은 3.0이상~3.5미만이라고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다( $F=4.52, p=.001$ ). 경제 상태는 중상위로 반응한 학생이 중위 혹은 하위로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다( $F=5.29, p=.001$ ).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입학 전형, 학년, 성별 및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변수	범주	n (%)	주관적 행복감			
			M (SD)	t or F	p	Tukey HSD
학년	1	139 (36.1%)	19.70 (4.10)	0.54	.582	
	2	119 (30.9%)	20.15 (3.52)			
	3	127 (33.0%)	19.70 (3.46)			
입학 전형	일반	263 (68.3%)	20.00 (3.53)	0.71	.495	
	전문대졸	57 (14.8%)	19.73 (4.23)			
	특별	65 (16.9%)	19.40 (3.97)			

성별	남	53 (13.8%)	20.55 (4.00)	1.37	.177	
	여	332 (86.2%)	19.75 (3.66)			
종교	유	142 (36.9%)	20.24 (3.48)	1.59	.114	
	무	243 (63.1%)	19.63 (3.84)			
입학 동기	취업 보장 <sup>a</sup>	148 (38.4%)	19.17 (3.76)	2.56	.038	a<c
	가족 추천 <sup>b</sup>	91 (23.6%)	20.19 (3.74)			
	전문적 특성 <sup>c</sup>	111 (28.8%)	20.50 (3.39)			
	봉사정신 <sup>d</sup>	29 (7.6%)	19.59 (4.30)			
	성적 <sup>e</sup>	6 (1.6%)	21.17 (3.19)			
신체적 건강 상태	매우 불건강 <sup>a</sup>	3 (0.8%)	14.67 (4.61)	12.62	<.001	a,b<e
	불건강 <sup>b</sup>	24 (6.2%)	18.17 (4.98)			c<d<e
	보통 <sup>c</sup>	108 (28.1%)	18.50 (3.48)			
	건강 <sup>d</sup>	165 (42.9%)	20.19 (3.28)			
	매우 건강 <sup>e</sup>	85 (22.0%)	21.59 (3.47)			
동료 관계	나쁨 <sup>a</sup>	6 (1.6%)	16.33 (3.61)	36.19	<.001	a,b<c<d
	보통 <sup>b</sup>	98 (25.5%)	17.54 (3.58)			
	좋음 <sup>c</sup>	228 (59.2%)	20.20 (3.15)			
	매우 좋음 <sup>d</sup>	53 (13.7%)	23.07 (3.27)			
전공 만족	매우 불만족 <sup>a</sup>	8 (2.1%)	17.13 (5.84)	10.79	<.001	a<e
	불만족 <sup>b</sup>	16 (4.2%)	17.18 (4.29)			b,c<d<e
	보통 <sup>c</sup>	113 (29.3%)	18.88 (3.66)			
	만족 <sup>d</sup>	185 (48.1%)	20.16 (3.05)			
	매우 만족 <sup>e</sup>	63 (16.3%)	21.83 (4.09)			
지난 학기 성적	< 2.5 <sup>a</sup>	12 (3.1%)	17.67 (3.20)	4.52	.001	a,c<e
	2.5 ≤ ~<3.0 <sup>b</sup>	50 (13.0%)	19.58 (4.81)			
	3.0 ≤ ~<3.5 <sup>c</sup>	103 (26.8%)	19.16 (3.55)			
	3.5 ≤ ~<4.0 <sup>d</sup>	155 (40.3%)	20.00 (3.48)			
	4.0 ≤ <sup>e</sup>	65 (16.8%)	21.24 (3.30)			
경제 상태	하 <sup>a</sup>	85 (22.1%)	18.95 (3.76)	5.29	.001	a,b<c
	중 <sup>b</sup>	205 (53.2%)	19.69 (3.77)			
	중상 <sup>c</sup>	83 (21.6%)	21.13 (3.24)			
	상 <sup>d</sup>	12 (3.1%)	20.25 (3.52)			

### 4.3 대상자의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정도

긍정적 정서는 평균 31.71±7.57점(최소 10점, 최대 50

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10~50점에서 중간 정도였고, 감사성향은 평균 31.12±5.27점(최소 7점, 최대 42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7~42점임을 고려할 때 중간보다 높았으며, 몰입은 평균 163.73±18.91점(최소 53점, 최대 26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53~265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자아존중감은 31.21±4.29점(최소 4점, 최대 4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4~40점임을 고려할 때 중간보다 높았고,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19.86±3.72점(최소 7점, 최대 28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7~28점임을 고려할 때 중간 정도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긍정적 정서, 감사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정도

변수	Mean (±SD)	범위	최소-최대
긍정적 정서	31.71( 7.57)	10-50	10-50
감사 성향	31.12( 5.27)	6-42	15-42
몰입	163.73(18.91)	53-265	99-224
자아존중감	31.21( 4.29)	10-40	18-40
주관적 행복감	19.86( 3.72)	4-28	8-28

### 4.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긍정적 정서( $r=.55, p<.001$ ), 감사성향( $r=.54, p<.001$ ), 몰입( $r=.53, p<.001$ ) 및 자아존중감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r=.50, p<.001$ ). 긍정적 정서는 감사성향( $r=.55, p<.001$ ), 몰입( $r=.50, p<.001$ ) 및 자아존중감과도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r=.50, p<.001$ ). 감사성향은 몰입( $r=.51, p<.001$ ), 자아존중감( $r=.46, p<.001$ )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 몰입은 자아존중감과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r=.50, p<.001$ )[표3].

[표 3]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변수	주관적 행복감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r (p)	r (p)	r (p)	r (p)	r (p)
주관적행복감	1				
긍정적 정서	.54 (<.001)	1			
감사성향	.55 (<.001)	.55 (<.001)	1		
몰입	.53 (<.001)	.61 (<.001)	.51 (<.001)	1	
자아존중감	.50 (<.001)	.50 (<.001)	.46 (<.001)	.50 (<.001)	1

### 4.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를 예측 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 변수인 주관적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 감사 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 간에 .46~.61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네 변수 모두 독립 변수의 투입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입학 동기, 신체적 건강상태, 동료관계, 전공만족도, 성적, 경제 상태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어서, 이들 변수를 예측 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예측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예측변수들 간에 .46~.61의 상관관계를 보여 예측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52~.98의 값을 나타냈고, 분산 팽창 요인도 1.01~1.94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의 확인 후 잔차분석을 위해 Dubin-Watson 검정과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Dubin-Watson 값이 1.89 이어서 설정할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ok's D 검정 결과에서도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서 관찰치를 그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입학 동기, 동료관계, 전공만족도, 성적,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 상태, 긍정적 정서, 감사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을 예측 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 $\beta=.24$ ), 자아존중감( $\beta=.23$ ), 몰입( $\beta=.18$ ), 신체적 건강상태( $\beta=.15$ ) 및 경제 상태( $\beta=.13$ )였고, 이들 변인은 주관적 행복감을 49.4%를 설명하였으며 ( $F=63.06, p<.001$ ), 감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의 가장 큰 설명 요인이었다[표4].

[표 4] 주관적 행복감 예측요인

예측요인	B	SE	$\beta$	t	p
감사 성향	.17	0.03	.24	5.30	<.001
자아존중감	.20	0.04	.23	4.95	<.001
몰입	.04	0.01	.18	3.65	<.001
신체적 건강상태	.65	0.16	.15	3.98	<.001
경제 상태	.65	0.18	.13	3.56	<.001
긍정적 정서	.07	0.03	.14	2.67	<.008
Adj R <sup>2</sup> = .494		F = 63.06		p = <.001	

##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최대 28 점 만점에 평균 19.86( $\pm 3.72$ )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권경옥(2009)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20.44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일반대학생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17]. 또한 행복의 인지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22] 삶의 만족이 대학생에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18],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행복감이 더 낮으므로[17],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 상태, 긍정적 정서였으며, 이들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49.4%를 설명하였다. 특히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몰입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큰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설명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30]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 상태였다. 이는 대학생의 행복요인 탐색에서 경제적 요인과 건강요인이 중요한 행복요인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관되며[19], 한국 성인에게 경제 수준은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와도 맥락을 같이 하여[5], 경제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몰입이었으며, 특히 감사 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의 특질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이 높다고 보고한 McCullough 등(200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감사를 많이 느끼는 대학생일수록 인지적, 정서적 안녕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10].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감사 성향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지만[34], 개입을 통해서 변화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4] 임상실습,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비교적 많은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감사 성향을 증진시

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2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17]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예측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15].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전공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17], 나아가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몰입이었다. 이는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정서 다음으로 몰입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9], 대학생의 몰입경험이 진로 결정 효능감과 진로 태도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26]. 또한 몰입은 시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할 때[21], 학업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직률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입학 동기, 동료 관계, 전공만족도 및 성적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입학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입학 동기가 ‘전문성 특성’이라고 반응한 학생이 ‘취업보장’으로 반응한 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과를 지원할 때는 취업보장을 위해 우선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전문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돕고 간호학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동료 관계가 좋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실습교육이 주로 조별로 이루어지므로 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므로, 교우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대인 관계 형성을 도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료 관계의 개선은 간호대학생의 취업 후 직장 동료 관계에도 영

향을 주어 직업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가 높고 성적이 좋은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는데,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타전공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보고[15]와는 부분적으로 상반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전공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신체적 건강상태, 긍정적 정서, 경제상태 순이었고, 이들 변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49%를 설명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입학 동기, 동료 관계, 전공만족도 및 성적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감사 성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몰입을 잘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경제상태가 양호한 간호대학생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감사 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을 높이는 중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취업 후 직업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과 취업 후 직업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구재선,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과의



- 관계 :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 권경옥, “행복결정요인 중 자의적 통제 기여에 대한 믿음증진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 권석만,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2008.
- [4]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1권, 1호, pp. 177-190, 2006.
- [5]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2권, 2호, pp. 1-33, 2003.
- [6] 김명소, 한영석,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한국 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7권, 2호, pp. 1-38, 2006.
- [7] 김혜주,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 경험이 진로 결정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8] 김희중,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9] 김희정,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10] 노지혜, 이민규,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005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454-455, 2005.
- [11] 박경혜,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요인 : 개인내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12] 박미영,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관한 인지적인과구조모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권, 1호, pp. 54-63, 2004.
- [13] 박선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4] 박영신, 김의철, “한국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권, 1호, pp. 161-195, 2006.
- [15] 박현숙, 권복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 1호, pp. 48-56, 2006.
- [16]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권, 4호, pp. 621-631, 2002.
- [17] 변경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과의 상관관계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8] 병원간호사회, 「2009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간호사의 이직률과 이직사유 현황」, 2009.
- [19] 신지연, “대학생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0] 유영달, “몰입감이 시험상황에서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권, 1호, pp. 219-242, 2004.
- [21] 이유정,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2] 임지숙, “노년기의 자기고양적 편향, 생애사건 해석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 [23] 전병재,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권, pp. 109-129. 1974.
- [24]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실습수행도 및 실습만족도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8권, 1호, pp. 60-68, 2009.
- [25] 정미현, 신미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권, 2호, pp. 170-177, 2006.
- [26] 조향숙, “일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권, 1호, pp. 3-14, 2008.
- [27] Compton, W. C.,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2005.
- [28] Csikszentmihaly, M., "If we are so rich, why aren't we happ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54, No.10, pp. 821-827, 1999.
- [29] Fredrickson, B. L., Tugade, M., Waugh, C. E., & Larkin, G. R., "What good ar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pp. 356-376, 2003.
- [30] Lopez, S. J., Snyder, C. R., & Rasmussen, H. N., Striking a vital balance: Developing a complementary focus on human weakness and strength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3-2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31] Lyubomirsky, S.,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56, No.3, pp. 239-249, 2001.
- [32] Lyubomirsky, S., & Lepper, H. S.,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rch, Vol.46, No.2, pp. 137-155, 1999.

- [33]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se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pp. 803-855, 2005.
- [34]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2, No.1, pp. 112-127, 2002.
- [35] Ostir, G. V., Markides, K. S., Black, S. A., & Goodwin, J. S., "Emotional well-being predicts sussequent functional independence and survival",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48, pp. 473-478, 2000.
- [3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7]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2.
- [38]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No.6, pp. 1063-1070, 1988.

**박 현 숙(Hyun Sook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후과정)
- 1996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교육

**조 금 이(Geum Yi Jo)**

[정회원]



- 1994년 8월 ~ 2008년 12월 : 서대구 대동병원 간호과장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 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0년 12월 :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 대학 전임강사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상담, 교육